

일개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의 대학생활 초기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

강예지*(성균관의대) · 김미현**(연세대) · 송승원(한국교육개발원)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갓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때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것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소재 일개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여덟 명의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의예과 학생들의 개별 특성에 따라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한 차원으로 드러났으며 크게 학업, 인간관계, 진로에 대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의예과 학생들은 의과대학 입학 직후 학업 및 진로에서 낮은 동기부여, 만족감, 기대감 등이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느끼는 반면, 구체적인 진로 계획 속에서의 혼란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 입학 직후, 초기 성년기 시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의 어려움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초기에 포착되어 극복되지 못한다면 대학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대학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세부적인 지원과 학습 동기 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의과대학, 의예과, 대학생활, 질적 연구, 대학생활 어려움

I. 서론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대학생활은 쉽지 않은 여정이다. 대학생이 되면 이전 고등학교 생활과는 달리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학창 시절에는 크게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지만, 향후 삶에 있어 새로이 개발되어야 할 사회적 역량이 요구되며, 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Robbins, et al., 1993).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행연구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학업을 지속함으로 인해 겪는 급작스러운 열등감(조두영, 1985), 극심한 내부경쟁 등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전우택, 2006), 개인적인 취향과 흥미, 고립감(Vitaliano, 1984), 무기력과 두려움(Guthrie et al., 1995)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의과대학의 경우, 교육과정의 특성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겪는 어려움의 특성에도 차이가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yeji.kang@skku.edu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신입학사지도교수 mk918@yonsei.ac.kr

있었는데, 의학과(본과) 1학년에서는 주로 학업문제, 2학년에는 건강염려증(Woods et al., 1966), 실습 과정이 시작되는 3학년에는 실습 교육과 이론과의 접목에 따른 어려움, 졸업을 앞둔 4학년에는 국가고시와 인턴 지원에 대한 진로 고민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Woods et al., 1966).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의학과(본과)에 편중되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예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제한적이다.

이 연구는 의예과 1학년의 대학생활에 주목한다. 대학이라는 하나의 사회 속에서 원만하게 적응해나가는 문제는 특히나 대학 1학년 시기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Messarra, et al., 2005; Ternzini, 1991). 실제로 의과대학 학생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1년이 채 못가서 기대와는 다른 현실 속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보고가 있다(Imperato & Nayeri 1991).

특히 한국의 의예과생의 대학생활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회적 맥락과 연관되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전 국가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 높고 전국 최고의 수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입학 직후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성취감, 진로가 보장될 것이라는 안도감을 가지며, 이 과정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적응, 삶의 비전 설정과 향후 진로 등과 같은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간과하며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과대학에서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의예과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향후 의학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사로서의 삶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과제들은 현재 의예과 학생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윤소정, 박귀화, 이지영, 2017).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은 갓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어떤 경험을 하며, 이때 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것은 어떤 특성과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예과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안착하는데 도움을 주며, 더불어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예과 학생의 인적 특성

소위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의사를 미래 직업으로 한 번이라도 고려해보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실제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우리 부모가 원하는 희망 직업’은 ‘의사/의료인’이 18.4%로 1위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선생님/교사(11.3%)’가 2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을 비교해보았을 때,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의료인을 장래희망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장현진 외, 2017).

이러한 희망은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동반한다. ‘재필삼선(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용어는 의과대학 입시 상황을 잘 대변한다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서울의대 합격자 50% 이상이 한 번 이상의 수능을 치른 재수생이라고 밝히고 있다.¹⁾ 이는 의과대학 입학에 위해서는 한 번의 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는 수능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여러 차례 도전해서라도 의과대학에 입학하고자 준비하는 의과대학 입시 맥락을 잘 대변한다 할 수 있다.

이렇듯 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한 의과대학을 향한 경쟁 상황은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실제로 최근 과학고, 영재고 출신 학생들의 의과대학 진학을 국가 차원에서 제재하여 진학을 막고자 준비 중이며, 이것은 본래 이 학교들이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정작 졸업 시 많은 학생들이 의대로의 진학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모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5년간 평균 2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진학 이탈을 막고자 장학금을 회수거나, 입학 당시 의대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같은 제재가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해당 고교 입학률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²⁾.

이상의 사례들은 의과대학을 향한 우리나라 학생 및 학부모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잘 대변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는 의과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모 의과대학 의예과 1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진로가 아닌 부모 및 주변인의 권유로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예병일, 2017). 이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른 어느 단과대학 학생들보다 높은 학업성적을 가지고 입학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진로, 미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의과대학 학생을 둘러싼 높은 사회적 열망,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신입생으로서 의예과생의 대학생활 어려움

의예과 시기는 초기 성년기에 해당된다. 발달론적 측면에서 이 시기에는 한 인간으로서 개발되어야 할 다양한 측면의 과업을 가진다. 예를 들어 청년기인 이 시기동안 정체감을 형성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꿈을 가지고 성인기를 위한 첫 인생 구조를 설계할 준비를 하기도 한다(김애순, 윤진, 1997). 그러나 이 시기는 학령기를 갓 벗어나 아직은 완전한 성인도 아닌 모호한 위치이다. 따라서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의 갈등, 소외, 외로움과 같은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시

1) 에듀동아(2019.01.24). “의대 진학 노련다면? 재수는 선택 아닌 ‘필수’... 이과 최상위권 절반 이상 재수생

2) 메디컬투데이(2017.08.17). “과학 인재 육성 과학, 영재고, 10명중 1명 ‘의대’ 문 두드린다”

기이도 하다(정옥분, 2003). 즉, 청년기의 시기는 많은 변화와 성취해야 할 과제 속에서, 주어진 역할과 변화에 대한 심리적인 적응을 적절하게 해내지 못할 경우 부적응과 비행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위기의 시기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에게 입학 초 대학생으로서의 과업을 수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학업적, 사회적, 생활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혼란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학습 방식, 복잡하고 어려워진 수업 내용, 다양한 과제와 평가 방식에 적응할 필요가 있고, 친구, 선배, 교수 등과의 새로운 인간관계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떠오른다(박선희 외, 2009).

이렇듯 초기 성년기로서 경험할 수 있는 대학생활 어려움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의예과 학생들의 경우 ‘의과대학’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예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학사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예과는 의과/치대/한의대학만이 가진 독특한 학사 과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르면 “대학은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하며, 그 교육과정은 의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예과에서는 주로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양과 인성함양을 위한 인문사회 의학교육,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기초적인 과학지식을 습득하며(정한나, 양은배, 2017),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화학, 유기화학, 일반생물학 등과 같은 의학과 공부의 밑거름이 되는 과목들을 공부하고, 그밖에 관심 있는 분야의 교양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경우가 많다(이중훈, 2006).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의예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은 선행연구를 통해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학업 및 대학생활 면에서의 어려움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대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1학년 의대생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신체적, 사회적, 사회적, 환경적 모든 영역에서 두루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범석, 2014). 특히 입학 이후 주변의 높은 기대와 찬사와는 달리, 과중한 학업량과 규격화된 교육과정, 잦은 시험과 같이 의과대학 고유의 교육환경에 불안과 긴장감을 크게 느끼기도 한다(박재석 외, 2002). 의학과와는 달리 의예과 교육과정이 가진 한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예과 교육은 의예과 고유의 특색을 살리지 못한 채 진행되고, 사명감과 애착이 부족한 교수들, 의학과(본과)에 비해 소속감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윤성도, 1992). 무엇보다 의예과 시기는 본격적으로 학업량이 늘어나는 본과 진입 전 놀고 쉬는 시기로 오랜시간 인식되고 있다(이중훈, 2006). 자신이 배우고 있는 학문이 무슨 연유에서 배우는지를 잘 모른다던가, 시간적 여유가 넘치는 시기라고 느끼고, 놀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생각, 허송세월을 보내는 시기,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예병일, 2017).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은 입학 이후 학업의 의욕을 잃거나 진로 설정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는 등과 같은 학교생활 내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의과대학에서는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학년 때는 기초의학에, 고학년 때는 임상 경험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의과대학 교육방식을 탈피하

여, 매 학년마다 기초와 임상 내용이 경계 없이 수평 및 수직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것이다(Dent et al., 2017).

뿐만 아니라, 의학과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교육환경 역시 의예과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약 절반 가까이가 의학과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이는 본과 과정에 진입하면서 병원에서 실습이 필요한 교육과정이 시작됨에 따라, 대학 부속병원이 있는 별도의 의과대학 캠퍼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이중훈, 2006). 이러한 교육 환경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타 단과대학 학생들과의 다양한 접촉과 교류를 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의예과 학생들의 경우 본과 교수 및 선배들과 접촉하기 어려우며, 본과 학생들의 경우 타 단과대학 학생들과 교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듯 의예과 교육과정은 매우 특수한 교육 환경을 구성하며,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입학 유형 및 입학 당시 학업 격차에 따른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의과대학의 특성상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고와 같이 다양한 학교 유형을 통해 입학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입학한다. 그러나 이들 고등학교의 유형이 모두 다르며, 각기 다른 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바탕으로 한 일반고와는 달리, 자율고, 영재고와 같이 학교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특목고와 같이 특수한 목적을 바탕으로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바탕으로 수학한 학생들의 역량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의예과 1학년 시절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고등학교 유형(과학고)이나 출신계열(자연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김하원 외, 2002). 물론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학년이 될수록 그 차이는 미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에 따른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는데 의예과 과정 기간이 완충기간으로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을 때는, 의학과 진학 이후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직간접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의예과 신입생들의 대학생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였다(Patton, 2002). 섭외를 위해 먼저, 학내 학생지도 전담 교수로부터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의예과 학생을 추천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였는데, 이는 의과대학의 특수한 교육 환경을 고려한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의과대학은 학생의 개인 평판이 졸업 후 병원(일터)에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집단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변 친구를 서로 소개하는 방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섭외했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잘 전달되고, 단 기간에 라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섭외된 연구 참여자는 총 여덟 명으로, 이들은 현재 서울소재 모 의과대학 19 학번에 재학 중이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 B, D, G는 참여자 중 동기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이었는데, 이들은 최소 두 차례에서 세 차례정도 수험능력시험을 치렀고, 타 대학 학사 과정을 밟으며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한 이력이 있다. 실제로 연구 참여 학생들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의 19학번은 약 50%가 넘는 학생들이 한 차례 이상 수능을 치른 재수 경험이 있었고, 이것은 윗 학번인 18학년과 비슷한 수치였다. 연구 참여자 E와 F는 재외국민 전형 입학자였다. 특히 E의 경우 치과대학 의예과 신입생인데, 본 연구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파일럿 단계에서 면담에 참여하였으나, 의예과 학생들과 연구 결과에 크게 차이가 없어 본격적으로 섭외하여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세부 정보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 참여자 정보*

| 참여자(성별) | 나이 | 고등학교 | 특이사항 |
|---------|-----|----------|---|
| A (남) | 25세 | 서울소재 일반고 | 재수 → 인천 소재 공대 1학기 재학 후 자퇴 → 군대 → 삼수(정시) → A 의대 입학 |
| B (남) | 24세 | 지방소재 과학고 | S대 공대 2학년 → 군대 → 휴학 → 수능 세 번 끝에 A 의대 합격 |
| C (남) | 20세 | 서울소재 자사고 | 학생부종합전형(수시) 현역 입학 |
| D (남) | 22세 | 지방소재 일반고 | 재수 → 지방소재 의대 재학 → 반수(정시) → A 의대 입학 |
| E (남) | 20세 | 해외고(미국) | 재외국민 3년 특례 입학 |
| F (남) | 20세 | 해외(동남아) | 재외국민 12년 특례로 S대 공대 1학기 재학 후 자퇴 → 재외국민전형 12년 특례로 A 의대 입학 |
| G (남) | 21세 | 서울소재 영재고 | 서울소재 의대 재학 → 반수 → A 의대 입학 |
| H (여) | 20세 | 서울소재 영재고 | 논술 전형 (수시) 현역 입학 |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함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방법은 양적 연구를 통해서도 살펴보기 어렵고, 연구 참여자들의 시각과 경험을 통해 이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Ragin, 1987). 여기서 ‘사례’는 그 사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미영, 2013). 본 연구에서는 갓 의과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사례’로 간주하고, 그것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주요 자료 수집방법은 심층 면담(depth interview)이었다. 면담은 2019년 6월~8월 약 세 달 동안 진행되었고, 학생 한 명당 1회에서 최대 3회의 면담을 가졌다. 면담 시간은 한 번에 약 2~3 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의 질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쟁점들을 몇 가지 키워드로 나열하였다. 대표적으로 ‘입학 전의 삶’, ‘의과대학에서의 생활’, ‘경험했던 어려움과 극복과정’ 등과 같은 것이었다. 질문은 연구 참여자 개인의 특성과 면담 분위기에 따라 반(半) 구조화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의과대학에 입학한 이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따라 상황에 맞게 추가 질문을 덧붙이는 방식이었다.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상세히 밝혔고, 연구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음을 자세하게 고지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연구 진행 이후에는 모두 파기하였다. 추가로 의예과 생들의 대학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도서, 미디어 매체 등을 병행하여 연구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먼저, 수집한 자료들은 모두 전사하여 연구 참여자별로 정리하고, 개별 연구자는 각각 연구 참여자의 사례를 모두 숙지하였다. 그러한 다음, 수집된 자료 중에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나열하여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특정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동료 연구자와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Stake(1995)가 제시한 ‘범주 합산’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어떤 하나의 종류라고 얘기될 수 있을 때까지 경우들을 모으는 방식’이다. 자료 안에서 적절한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들을 찾고, 그것을 함께 모으며 범주화 하는 작업이었다(고미영, 2013).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법론적 삼각측정(methodological triangulation)’ 방법을 따랐다(신경림, 2004). 이를 위해 의과대학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교육담당 전문가 및 교육학 박사, 본 연구 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의 학생 지도 교수와 연구의 내용을 공유하고 검토 받는 작업을 거쳤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의예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결과, 의예과 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 내 어려움은 학업, 인간관계, 진로에 대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1. 학업적 어려움

가. 학업 준비도 차이: “저만 백지상태여서 울었어요”

의예과 학생 면담 결과, 일부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생활 초반 의과대학 학업을 처음 경험하면서 동료 간 이해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A는 타 대학 건축학과 재학 중 다시 수능을 준비해 뒤늦게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타 대학 재학 경험이 있더라도, 그는 레포트 작성, 원서 읽기, 논문 찾기 등의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 과정이 낯설을 느끼며 적응하고 있던 중, 몇몇 동기들에게는 이미 익숙하게 의과대학 학업 방식에 적응해나가고 있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수업에서 저는 아예 모르는 내용인데 과학고, 영재고 출신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개네들은 레포트 같은 것도 많이 써봤고, 심지어 수시로 들어온 일반고 애들은 정말 대학 수업에 익숙하게 적응해요. 많이 알아요. 저만 백지상태여서 많이 울고 그랬는데...” (A)

재외국민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E 역시 주변 동기들과 이 같은 차이를 느끼며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 E는 외국에서 학업 생활을 한 자신보다, 한국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서 더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영어기반 강의를 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학점 관리를 해나가고 있었다.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은 한국 학생들이 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수학 과목이라던가 국어와 같은 과목은 일단 저는 항상 피하고 있습니다.” (E)

이들이 경험한 학업에 대한 어려움은,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을 둔 개개인의 지적 능력의 차이라기보다,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학업 방식에 얼마만큼 사전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른 학업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수업에서는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스스로 논문을 찾아보거나, 레포트 작성 등의 대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해 나가기 위한 역량들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같은 역량은 공식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 습득한다기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암묵지처럼 전수되나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전에 어떤 경로로든 간에 이러한 방식의 학업 스타일에 일찍이 노출된 경험이 있을수록 초기 대학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수목적고, 영재고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의과대학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과학 과목들을 사전에 선행하여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과 학업 역량에 실질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과학고 출신의 연구 참여자 G는 과학고 재학 경험이 의과대학 대학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리했다고 인식했다. 심지어 G의 경우, 과학고 졸업 후 타 의과대학 의예과에 한 학기 재학한 후 다시 수능을 치러 현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따라서 그의 현재 의예과 생활은 과거 의과대학 교과 과정에 노출된 경험으로, 다른 동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의과대학 수업에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 과학고 때 어떤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완전 주입식 공부를 했었는데... 과학고 수업은 어려운 걸 배우다보니깐 뭔가를 찾아보는 능력이 길러진 것 같아요. 원서를 읽는다던지 논문을 찾아본다던지요.” (G)

나. 학습 동기 결여: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상실’

의예과 입학 후 학습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 등의 학습 동기 결여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대학생활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의예과 학생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학습 무동기 상태로 해석되는데(안도희 외, 2007), 학생들은 특정 활동을 하는데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상실된 채 대학생활 초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무동기 상태는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시 맥락과 함께 연관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중 많은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 극심한 학업량,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오랜 시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습의 진정한 의미, 향후 삶에 대한 진지한 방향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상태로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이 과정에서 상실감과 의욕 없음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과고나 영재고에서 날아다니다가 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학습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고 보거든요. 10%~20% 정도가 있는데, 과학고 영재고 출신 애들 중에서 아주 미친 듯이 논다라고 하는 애들 많아요.” (A)

“그동안 제가 공부를 했던 이유는 의대 입시를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대학 와서 더 힘든 게 의사라는 직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걸 상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에요.” (F)

다. 의학과 정보 부족: ‘1학년만 있으니 한계가 있어요’

의예과 학생들은 의학과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많은 의과대학에서 그렇듯이 연구 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에서도 의예과 단계에서 의학과(본과) 진학 후 진로에 대한 견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렇듯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학사 정보가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선배 및 교수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알게 되는 비공식적인 정보는 부족한 편이라고 인식했다. 예를 들어 본과 진학 이후의 생활이나,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는지와 같은 학업량 등과 같은 정보들이다. 일부 학생들은 동아리 참여, 고교 동문회 등을 통해 선배들과 교류하며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대인관계에 의존한 정보수집이기 때문에 갓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인적네트워크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의예과가 의학과(본과)와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는 현 의과대학의 특성상 선배들과의 교류마저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본과에 가면 잠은 몇 시간 잔다. 밤은 무조건 새아한다. 아니면 시험이 주마다 하나씩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때 가면 공부 말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게 약간 불안한 거 같아요.” (C)

“본과랑 멀기도 하고 예과생들만 모여 있어서 다들 건설적인 삶을 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선배들이랑 있으면 자극을 받는다면, 1학년들만 있으니까 프레서를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G)

“동기들은 당장 안 친해져도 나중에 충분히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배들은 선배들이랑 친하면 쓸쓸한 도움이 되고, 처음에 친해지지 못하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H)

2.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 입학 유형 차이: ‘다름을 경험하기’

면담 과정에서 학생들은 빈번하게 또래 집단을 ‘출신 고등학교’에 따라 구분했다. 이것은 학생들은 대학생활 초반 동기들의 출신 고등학교의 특성에 따라 서로 간 차이를 경험했는데, 이 같은 차이가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면담 중 ‘과고, 영재고 학생’이라는 단어는 빈번하게 등장했는데, 연구 참여 학생들에게 이들은 의과대학 내에서 학업에 문제가 없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고등학교 출신에 삼수를 하며 의과대학에 들어온 연구 참여자 A는 과학교 등의 특목고 및 영재고 출신 그룹을 ‘우수한 아이들’로, 현역으로 입학한 자사고 출신 C도 이들을 ‘부러운 대상’이라 언급했다.

“예과 때 아주 미친 듯이 논다 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는 과학교나 영재고 출신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우수한 애들이 왜 그러지’ 생각하는거죠.” (A)

“과고 영재고에서 온 친구들을 보면 위축도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들이 그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밟고 온 것이니까. 확실히 어드벤티지가 있더라고요.” (C)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 학생들 역시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이들은 해외거주 3년 및 12년 특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로서, 외국에서 공부 및 생활 경험으로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면담 과정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한국 출신 학생들과 ‘다르다’고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재외국민 전형 학생들을 바라보는 차별과 편견 등의 사회적 시선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의과대학 입시에서 특례 전형 입학자를 한국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입학하고”, “혜택을 받은 아이들”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정작 해외고 출신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우수한 외국어 어학 능력,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한 국제적 감각 등에 대해 개인적인 자부심과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는 별개로, 자신이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한국 학생들의 편견과 멸시는 대학생활을 하는데 심적으로 큰 상처로 남게 된다. 심각한 경우, 연구 참여자 E처럼 자신이 재외국민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는 등의 콤플렉스를 갖기도 했다.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재외국민이나 특례 전형 같은 건 폐지되어야 하는데... 한국 학생의 노력을 무시하는 거고, 한국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점이 있다. 이런 논조의 글이었고 훨씬 감정적이기는 했지만. 그런걸 보면서 내가 재외 국민이라는 걸 알면 일부학생들은 날 싫어하지 않을까?” (E)

“해외 막 혜택 받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좀 깔보는 것 같고... (중략) 새내기 배움터에서 만난 친구랑... 뭔가 대학에서는 찾기 힘든 고등학교 친구 같은 느낌. 영어로 말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의대 온 게 잘 한 거가 그런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많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잘 해줘서...” (F)

나. 의예과 내 인간관계 구축: ‘공통점 찾기’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대학 내 인간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또래집단을 형성하는 양상은 참여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일부 학생들은 나와 동일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끼리 공통점을 찾으며 심리적 안도감을 공유함으로써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 D는 동일한 재수학원 출신이 신입생 중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낯선 신입생 문화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재외국민 입학자 E는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화 거리를 공유할 수 없어 힘들었고, 또래집단에 포함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일부러 공통 대화 꺼리를 준비해가거나 한국 문화에 익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을 하기도 했다.

“재수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OO 재수학원에서 온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했던 것 같아요.” (D)

“한국에 문화에 친구들끼리 만나면 서로 할 이야기가 스포츠도 있고 텔런트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 뻔뻔해지고. 아이돌도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국제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도 하고.. 대화에 끼고 싶어서 준비를 해가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주로 편한 (특례)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E)

일부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나와 공통점이 없는 동기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가지거나,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등의 거리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학 내 인간관계보다도 대학 입학 전 (고등학교 등) 인간관계에 더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예를 들면 연구 참여자 C와, E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보다 고등학교 친구를 더욱 ‘친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이질감 없이 입시를 준비하며 동고동락했던 경험이 이들에게 더욱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훨씬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같이 입시를 겪고 경쟁을 해본 친구들이니까 거기서 나온 약간 전우애? 이런 느낌도 있고. (중략) 저는 현역으로 왔으니까...” (C)

다. 의대생을 둘러싼 시선: ‘부러움과 편견 느끼기’

의예과 학생들을 바라보는 타 단과대학 학생들의 시선 역시 대학생활 초반에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타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A의 경우, 그 당시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의과대학 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변으로부터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인간관계 형성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OO 대학교 건축공학과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1학년들끼리 만나면 무슨 파나 물어보는데 의예과라고 하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친해질 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의식중에 조금? 조금? 과하게 뿌듯해 할 때가 있어요.” (A)

그러나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학내 의예과생의 불성실한 행동 때문에 의예과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며, 이러한 인식은 대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의예과 교육과정에서 ‘팀플(팀플레이의 준말)’은 타 단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 주어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제인데, 의예과 학생들이 팀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타 전공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 영어 수업에서 예과라서 대충하실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약간 ‘예과생들은 대충한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C)

“의대생인데 팀플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의대는 열심히 안한다는...” (B)

“글쓰기 같은 거 들을 때 팀플에서 할 거 안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자기가 챙겨야 될 거는 챙기고 남들이랑 같이 하는 거는 하지 않아서 의대 이미지가 안 좋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대인데 너도 아무것도 안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제가 피해볼 때도 있어요.” (G)

“민거의(민고 거르는 의대)라는 말을 자주 듣죠. 의대는 학점 상관없으니까 피해준다는 생각... 그런데 대부분에 의대 애들은 피해를 주지 말자는 분위기니까. 저도 최대한 말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요.” (H)

3. 진로에 대한 어려움

가. 활동의 부재: ‘할 것이 없어요’

학생들은 의예과 시간을 힘들었던 입시를 마치고 본과 과정이 시작되기 전, 암묵적으로 허락받은 자유로운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누리는 자유 속에서 시간이 의미 없게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딱히 할 것도 없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과 고민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활동의 부재 상태로 의예과를 허송 세월 흘려보내고 있으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의미 없는 활동들(PC방, 당구 등)을 지속하고 있었다.

“막상 놀다보니까 학교에서 예과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없다보니까 조금 방황했어요. 다들 PC방에 있거나 당구치거나... 좀 허탈하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방향성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중략)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할 거는 없고...” (G)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할 것은 없고... (중략) 중요하게 성적이 들어가는 것은 본과부터니까.. 예과 때 못 놀면 거의 몇 년 동안 못 노니까.. 지금이라고 놀아야하고...” (D)

“일단 동기들이 공부를 되게 안하는 거 같아요. 여기는 놀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도 까보면 다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F 학점만 면하자 이런 학생들도 되게 많고” (B)

나. 또 다른 입시 준비: ‘반수’

의예과 신입생들의 초기 대학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반수’³⁾ 여부이다. 본 연구 참여자 중에서 D, G는 이미 의과대학에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능을 준비해서 다른 의과대학에 진학을 한 경우이다. 실제로 의예과 학생들 중 현재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있더라도 더 높은 급의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재학 중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연구 참여자 G는 반수 시, ‘혼자 배정받은 기숙사 방에서 몰래 공부’한 경험이 있고, 이는 ‘동기들에게 반수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였다.

“(연구자: 前의과대학 다닐 때 낮에는 대학 공부하고 밤에는 수능공부하고 그게 가능했었어요?) 기숙사에서 혼자 방에 있을 수 있어서 안 들키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중략) 주말에만 단과 듣고, 평일에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리고 사실 A대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여기서 잘 해야 되니까 예과 학점도 열심히 챙겼던 것 같아요.” (G)

3) ‘반수’는 대학 재학 중 다시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을 일컫는 대학 입시 은어이다.

“수능을 한 번 더 도전했다가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1학년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있던 동기도 내가 반수한 걸 알게 되고, 또 한 학년 밑으로 들어가면 원래 같이 다녔던 동기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D)

이렇듯 의과대학 재학 중에 반수 준비하는 학생은 치열한 입시 환경 때문에, ‘의대만 들어가면 된다’는 분위기에 맞춰 처음부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학년 과정을 재학하면서 연말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는 만일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상위 학교로의 진학에 실패했다하더라도 현재 학교에 그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소위 ‘보험’) 학생들에게 선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반수 준비로 인한 대학생활에 소홀한다면 또래집단,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적응 등과 같이 대학생활 초기에 형성될 수 있는 많은 역량 형성에 제약이 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반수에 실패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 늦은 출발: ‘조급한 마음’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 여러 차례 수능을 치룬 소위 ‘N수생’은 본 연구 참여자 중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이들의 경우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과 함께 학업에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인다. B에게 의예과는 ‘공부도 학점도 놓지 않고 뭐라도 많이 하는 시기’, A는 ‘다른 동기들과 차별점을 찾는 시기’로 인식되었다. 이들의 경우 동기들에 비해 자신들이 ‘늦은 출발’을 했으며, 이것이 향후 경력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과 부전공을 밟으면서 저는 좀 더 힘든 과목도 많이 듣고 하고 있어요. 공부, 학점도 안 놓고, 열정을 잃고 그냥 그냥 살아가게 될 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중략)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 참여, 학업도 놓지 말고...” (B)

“동기들이 잘해줘서 학교생활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동기들보다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차별점을 가지려면 포트폴리오라도 만들어서... (중략) 달리 내세울 건 하나도 없고 나이가 다섯 살씩 많으면 제가 불리할까봐...” (A)

주목할 점은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가 대학 내 생활과 적응에는 도움이 되는 요소로 인식하면서, 향후 진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A와 B는 입학 당시에는 많은 나이가 학교 적응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 타 학교 재학 및 재수 경험이 오히려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대신, 늦은 출발로 인해 향후 경력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 새로운 목표 찾기: ‘경쟁력 갖기’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학업에 대한 무동기와 의미 없는 생활에 대해 고충을 겪으면서도, 동시

에 이들은 이 시간을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D는 입학 이후 ‘한층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A는 의예과 시간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고민’의 시기로 인식했다.

“뭔가 저는 자기 계발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저를 한층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거. 근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 (D)”

“예과 1학년 때는 본인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실제로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 나가야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요.” (A)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의 의예과 시절 구체적인 진로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의예과 입학 이전의 성장 과정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적에 맞춰 진로와 직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상태로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고 면담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은 의대에 가는 분위기’(C), ‘의대 진학한 형과 부모님의 권유’(F), ‘물리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진학’(G)한 연구 참여자들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고등학교 때까지 명확한 진로가, 뭔가 되게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뭐 그럴 거면 의사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사실 제 고등학교 분위기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다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분위기여서 그것도 영향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C)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권유가 있어가지고. 저희 형도 의대를 갔는데 형 따라서 의대를 가라 그러서 가지고” (F)

“고등학교 때 처음에는 의대에 관심이 없는데 어머니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때 까지만 해도 물리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입시 직전에 어머니께서 열심히 설득을 하셨어요. 저에게 이상적인 삶은 물리학과 가서 연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현실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G)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의예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의예과 총 여덟 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의예과 학생들의 개별 특성에 따라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한 차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 참여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및 입학 유형에 따른 차이가 대학생활에서의 학업 및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의예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과학고 등의 특목고 출신,

영재고 출신 학생들이 학업적 역량이 뛰어나며, 의과대학 학업을 위한 높은 준비도를 갖춘 ‘부러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에 대해 객관적으로 느낀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학업 방식에 얼마만큼 사전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른 학업 준비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얼마나 의과대학 학업방식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에 따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상대적인 위화감을 가졌으며 이는 대학생활 초기에 심리적 위축과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N수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타 대학 진학 경험이 있을수록 대학 내 학업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는 경우는 적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많은 나이가 대학생활에서 직면하는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늦은 출발로 인해 향후 경력에는 불리할 것으로 인식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기들과는 차별되는 경쟁력을 갖기 위한 다양한 활동(부전공, 교환학생, 포트폴리오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외국민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의예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어려움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연구 결과이다. 이들은 특례 입학생을 둘러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학생들을 ‘쉽게 입학하고’ ‘혜택 받은 아이들’이라는 시선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국 출신 학생들에 비해 자신들이 학업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일한 입학 유형으로 입학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또래집단을 형성하며 동질감을 느꼈고, 가끔은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 입학 유형을 숨기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다.

둘째, 의예과 학생들은 의과대학 입학 직후 학업 및 진로에서 낮은 동기부여, 만족감, 기대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의예과 시기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활동의 부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동기의 결여 상태에 처해있었다. 의예과 시기의 학업에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현재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상태로 대학생활 초기를 보내고 있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이러한 무동기 상태는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입시 맥락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오로지 의과대학 입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극심한 경쟁, 과도한 학업량, 성적에 대한 부담감 가지고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학습의 진정한 의미, 향후 삶에 대한 진지한 방향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려 결여된 상태로 의과대학에 입학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의과대학 진학을 앞둔 상당수의 학생들이 부모/주변인의 권유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의대에 진학한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예병일, 2017).

본 연구의 결과 의예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의과대학 입학으로 인한 안도감, 더 이상 힘든 입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의예과 입학 이후 그 동안은 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의 경우 졸업 후 진로의 방향이 타 단과대학에 비해 구체적이며, 교육과정 역시 단선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들이 특수한 교육과정 속에서 느낄 낯섦과 막막함, 자신 앞에 놓여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 부여의 결여로 인한 불안함을 경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셋째, 의예과 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이 같은 어려움들은 초기 성년기 시기에서 경험해야 할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연구 결과에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의예과 학생들은 이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동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차원의 공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결국, 이 연구는 의과대학 내에서 의학과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의예과 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대학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주장했던 의과대학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어려움을 일부 확인하였다. 대표적으로 의예과생의 학습 무동기(안도희 외, 2007), 부모/지인의 권유로 입학(예병일, 2017) 등의 내용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보고한 것 이면에는 의예과 시기 자체를 의미 없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학업 및 진로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요구들이 대학생활 초반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의예과생들의 대학생활 내 어려움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학업과 생활 속에서의 어려움 그 이상으로, 그동안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향후 삶에 대한 진지한 방향을 설정하고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닌 성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는 경계 넘기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입학 후 초기 예과생들이 느끼는 인식에 주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졌기 때문에 느끼는 학업 격차, 그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과 스트레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과 또래집단을 형성하거나 남몰래 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대응방식 등은, 의예과 학생들의 초기 대학생활 속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의학교육 연구가 의학과(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의예과 학생이더라도 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 어떠한 인식을 형성하는지를 살펴본 질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하기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예과 학생을 위한 대학생활 어려움 극복 지원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학생의 대학전형, 대학입학준비과정, 개인성향, 개인적 경험 등으로 인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대학에 비해 의과대학의 경우, 여러 차례 입시를 치른 ‘N수생’은 물론이고, 특목고 조기 졸업으로 입학하여 또래보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도 있어 나이의 편차가 다양하다. 따라서 동일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함께 어울리기’가 또래집단 사이에서 주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의과대학에서는 동기끼리 모든 수업을 동일하게 수강하고, 오랜 시간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특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구성원 속에서 인

적 특성으로 인한 다양성이 어떻게 학생들의 대학생활 어려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민감하게 포착하고, 대학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입학 전 학업 준비도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업적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일반고, 특목고, 영재고 등과 같이 출신학교 유형에 따라 의과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에 대한 사전 준비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학업 준비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감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업 역량의 차이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 갭이 점차 줄어들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김하원 외, 2002), 그 이유는 의예과 과정이 본연의 목적을 살려 완충기간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을 경우이며, 만일 학생들의 어려움이 대학생활 초반에 극복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대학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포착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예과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은 의예과를 자기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자기개발의 방향이 학문적 탐색일수도 있고, 단순히 놀기를 통한 자기 탐색일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경험들은 그 의미를 부여하여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어야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의예과 시기는 상대적으로 또래집단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이다. 의과대학 동기 간, 타 단과대학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적 역량을 공유하는 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유의 장은 학생 개인 뿐 아니라 대학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 일부 대학에서는 RC(residential college) 교육을 통해,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생활과 학업이 연계된 공동체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고미영 (2014). 질적사례연구. 서울: 청록출판사.
- 김애순, 윤진 (1997).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지영, 임경미, 박병 (2017). 지방대학 여학생의 대학생활 경험과 인식. *교육심리연구*, 31(3), 469-498.
- 김하원, 고희선, 이무송, 남주현, 김원동, 이재담 (2002). 일개 의과대학에서 입학 시 특성에 따른 의예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한국의학교육)*, 14(2), 257-268.
- 류숙희, 이혜범 (2012). 국내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학생들의 인지·정서·사회적 특성 고찰.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4(2), 103-115.
- 박범석 (2014).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삶의 질과 관련 요인 비교분석.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박재석, 류설영, 장은진, 김정범 (2002). 의과대학생의 불안 및 자아강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생물치료정신의학*, 8(1), 150-157.
- 신경림.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안도희, 박귀화, 백광진, & 정상인. (2007). 의과대학생들의 학업동기,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성적에 대한 지각 간의 관계.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1), 59-71.
- 예병일 (2017). 한국의 의예과 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인가?. *의학교육논단*, 19(3), 121-128.
- 윤성도 (1992). 의예과 교육 개선 방안. *한국의학교육학회*, 4(2), 4-11.
- 윤소정, 박귀화, 이지영 (2017). 의예과 학생들의 학제간 융합연구 과정 참여 효과.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 771-782.
- 이순형 (1985). 의과대학이란 어떤 곳인가?-의예과 교육의 문제점. *건강소식*, 9(75), 16-19.
- 이종훈 (2006). 의대를 꿈꾸는 대한민국 천재들. 서울: 한언.
- 장현진, 민숙원, 김민경, 류지영, 김재희 (2017).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 서울: 직업능력 개발원.
- 전우택 (2006). 의과대학생 학습 및 생활지도의 새로운 모색-2005 년도 학생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8(1), 23-33.
- 정옥분 (2003). 청년발달이해. 서울: 학지사.
- 정한나, 양은배. (2017). 의예과 교육의 역사적 발전과 교육과정 편성 방향 고찰. *의학교육논단*, 19(3), 115-120.
- 조두영. (1985). 임상행동과학: 종합병원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Dent, J., Harden, R. M., & Hunt, D. (2017). A practical guide for medical teachers. Elsevier health sciences.

- Guthrie, E. A., Black, D., Shaw, C. M., Hamilton, J., Creed, F. H., & Tomenson, B. (1995). Embarking upon a medical career: psychological morbidity in first year medical students. *Medical education, 29*(5), 337-341.
- Imperato, P. J., & Nayeri, K. (1991). First year medical student experiences with being discouraged from entering medical school.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91*(6), 243-244.
- Messarra LC. Sources of stress for first year students and their perception of the university employed support services: a case study. 2005.
- Patton, M.Q. (2002).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Ragin, C. C. (1987). *The Comparative Method: Moving beyon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rateg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bbins, S. B., Lese, K. P., & Herrick, S. M. (1993). Interactions between goal inst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an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3), 343-348.
- Terenzini, P. T., Springer, L., Yaeger, P. M., Pascarella, E. T., & Nora, A. (1996).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Characteristics, experiences, and cognitive development.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7*(1), 1-22.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Vitaliano, P. P., Russo, J., Carr, J. E., & Heerwagen, J. H. (1984). Medical school press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nxiet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2*(2), 730-736.
- Woods, S. M., Natterson, J., & Silverman, J. (1966). *Medical students' disease: hypochondriasis in medical education*. *Academic Medicine, 41*(8), 785-90.

Abstract

A Study on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Pre-medical Students in College Life

Kang Yeji(Sungkyunkwan University)

Kim Mihyun(Yonsei University)

Song Seungwon(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pre-medical students in college life and explore the meaning in depth.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first year pre-medical students attending A Medical College in Seoul, South Korea, the conte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and reviewed according to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in college life were revealed to be in diverse dimension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pre-medical students, and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academic, human relations, and career dimensions. In addition, pre-medical students were shown to have low motivation, satisfaction, and expectation in their studies and career life immediately after entering medical college. Finally, they were shown to feel expectation and aspiration for their life as a doctor while being confused and afraid in concrete career planning. The results as such indicate relatively positive levels of difficulties that can be experienced during the early adulthood period of the early days after entering a college. However, such difficulties require support and management at the college level because they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overall college life if not caught and overcome early. Therefore,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support and practical measures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students.

[Keywords] School of medicine, Premedical student, College life, Qualitative research